

## 社 說

### 무관심속에 표류하는 대학의 본질

— 각종 학술행사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고

요사이 대학가는 1년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작업으로 매우 분주하다. 우리학교의 경우도 학내에 있는 각종 연구소 및 학술동아리, 과학회 등은 학술지·연구회보 등의 발행을 통해 연구성과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세미나·심포지움·토론회·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일반에게 전달 하려는 노력을 진행중이다.

대학을 '학문탐구의 장'이며 문명과 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 하는 곳'으로 규정한다면 이같은 학술행사는 매우 바람직한 대학사회의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학생은 물론 일반에게 까지 애정어린 관심과 주목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내의 학술적 활동에 대한 세인(世人)의 관심은 행사의 주제를 주조하고 그나마 행사에 참여할 일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조한 참여율이 대학사회의 질적발전과 학문적 성과의 공유라는 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한편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본교 '현대 한국정치연구회'와 '국제평화연구소' 주최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의 학술발표회는 발표자 외에 12명만이 참가 하였다. 그나마 그나마 교수와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부생은 단 2명만이 참석했다. 게다가 정의와 '모의국회' 행사는 학부생이 기획하고 진행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단 17명만이 참가했다. 이외에 많은 학술행사도 별반 다를 바 없이 학생들의 외면 속에서 치러졌다.

학술행사의 외면은 학문적 성과의 보급이라는

차원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받는 다는 데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학술행사는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학술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의 자위 행위' 밖에는 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 한주는 단과대학 선거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술행사 보다 선거에 관심을 쏟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또한 행사 주최자가 홍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 캠퍼스에 1만2천여명, 수원캠퍼스의 8천여명을 헤아리는 모든 학생들이 선거와 관련해 분주 했다고 볼수는 없으며, 특정선거에만 행사정보가 전달됐을지도 만무하다.

그렇다면 각종 학술행사가 학생들의 전반적 무관심으로 인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학이 그 본질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욕망은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지(知)적인 욕구는 인류문명의 체계화와 합리화에 공헌한 바 크다.

대학은 '심아랍'이라는 비유에 걸맞게 학문의 최고단계를 지향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교육은 주입식 일 수 없으며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적 자기학습과 적극적 노력을 요구한다. 학내의 각종 학술행사가 올바른 자리매김하고 의도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표류하는 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애국하는 주체로 조국강토에 우뚝서자!”

바람직한 사회진출을 위하여



#### I. 취업전쟁

매년 이맘때는 대학사회가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때이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정신없이 바쁜 사람은 내년도 학교에 남아 있을 사람들 보다는 졸업생을 앞둔 4학년들일 것이다.

이미 취업이 결정되어 출근을 하고 있거나 느긋하게 졸업을 준비하는 일부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대다수는 이력서·지원서·자기소개서에 돌리고 치어 아마도 자기자신이 복사기(?)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을 때이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졸업생이 직장도 구하지 못해 놀고 있더라 '사람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 취급을 받았으며, 무능력자, 혹은 인생의 낙오자로 불리워져 왔다. 물론 요즘에도 대졸실업자를 유능한 인재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요사이에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대학 재학 시절보다 더욱 한가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정도로 요즘엔 취업하기가 힘들며,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의 '취업'은 흔히 별다른 기회도 없이, '전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죽음까지의 주어진 시간동안 자기를 성취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나름대로의 성취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사실 무언을 하고 있는가라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보다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때문에 대학생의 사회진출은 단순한 취업의 의미보다는 더 커다란 의의와 책임이 부가된다.

#### II. 지성인의 사회진출

대학은 민주를 제대로 연습하고, 사회속에 구현하기 위한 '학습의 장'이며 고등교육까지의 교육형태와는 다르게 자율과 자유가 중시된다. 따라서 대학은 취업을 위한 학원이 되어서는 안되며, 단편적 지식을 전달하는 소극적 교육방식을 취해서도 안된다. 사회로 진출하는 전초기지로서의 대학은 사회정의와 민주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또한 습득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때문에 지성인의 사회진출은 지식인과 기능인의 그것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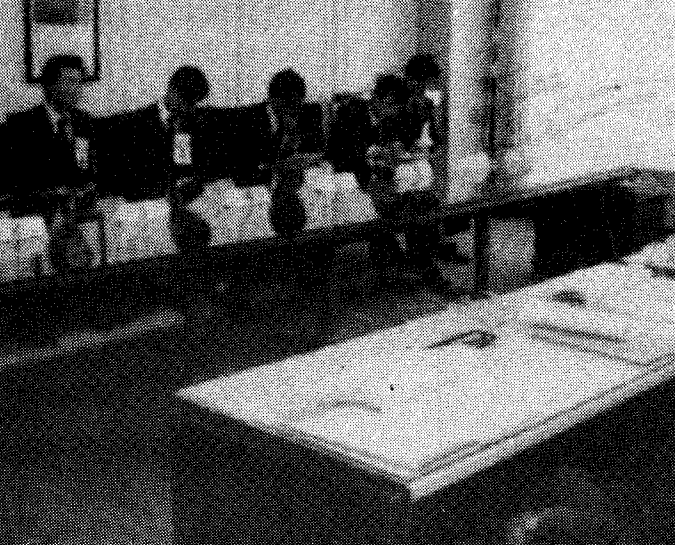
다르게 사회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고려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성인의 사회진출이 자신의 능력과 생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일반기업체나 증권관리자 즉 '화이트 칼라'로 사회에 진출한 사람은 패배자요 도피자라고 표현됐었고, 노동계나 재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사상의지가 강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후배들의 귀감으로 존경을 받아 왔었다.

이러한 개념의 탈락 근거는 애

용 사용하는 가옥이 많았다. 따라서, '인본'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환경관리자'로서 속칭 '봉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한나절 내내 '봉투요, 봉투요' 하며 거리를 누비고 다녔으며, 그 소리는 출사 '동포여, 동포여' 라고 들렸 다 한다. 얼마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면 '동포'를 부르짖고 다닐까. 때문에 그들은 봉투를 사랑하고 또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로 불려야 할 것이라는 개념이 존재한 때가 있었다.

동들의 최전방에서 선전·선동등 민중조직화를 담당하는 적극적인 형태까지 '애국적 사회진출'의 폭은 매우 넓다. 하지만 애국적 사회진출을 준비하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그 형태와 방법의 모색보다 어떻게 역할과 능력에 맞게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능력면에서 적극적 사회진출이 요구되는 사람이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소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회진출을 하게 된다면, '일' 속에서 자



◀조그마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운동신사까지 바람직한 사회진출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사진은 대기업의 면접시험 정경>

## 취업, 단순한 생존수단 아닌 자아실현의 도구 능력과 책임에 걸맞는 애국적 진출 요구돼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운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부문의 운동의 역할과 책임이 비대해 지면서 지성인의 '애국적 사회진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었다.

'애국적 사회진출' '애국'은 말 그대로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애국적 사회진출'은 '조국을 사랑하는 주체로서 사회에 진출해 무슨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아울러 '조국의 아들·딸로서 나는 어떻게 조국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애국적 사회진출'은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며, '애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애국이란 무엇인가? '애국'은 참으로 감미로운(?) 단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애국'은 그 사전적 의미처럼 단순히 '조국을 사랑한다'는 추상적 문구는 아니다. 애국은 말뿐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행위'이다. 때문에 애국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애국의 범위는 실로 방대하다.

70년대 중반만 해도 요즘같지 않아서 서울 시내에 재래식 화장실

신의 역량이 배가되고 단련된다기 보다 전자는 적국적이 못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후자는 자신의 한계속에서 자화과 절망에 빠져 오히려 자신의 위치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화교를 떠나 사회로 진출하는 졸업예정자들에게 요구되는 때이다.

정진호 <의대영문 4>

“이름이 아깝다”

HYUNDAI

우리의 현대 세계의 현대



## 세계의 자유와 평화, 繁榮 — 現代와 더불어 未來가 있습니다.



열사의 중동에 이룩한 大役事를 비롯, 방하의 남극에 건설한 世宗 과학연구기지, 미 태평양 연안에 설치한 세계 최대의 원유수송, 해양구조물 엑스 자켓, 문송기 약천후 속에서도 설치하는 인도양 심해의 천연가스 채굴용 해상 플랫폼 등의 大役事를 이룩한 현대는 이제 사바리아 극한지대에서 한국에 필요한 모든 자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現代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끊임없는 대장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現代와 더불어 未來가 있습니다.

